

News

한은, 치솟는 물가부터 잡는다…15년 만에 두달 연속 금리인상

머니투데이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0.25%p 인상한 1.75%로 결정… 두 달 연속으로 금리인상 단행한 이유는 물가 잡기 위함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12년 이후 최고치 기록… 을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인 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주담대 7%·신용대출 5% 코앞…작년 8월 이후 이자부담 16조 늘어

서울경제

한은 금통위의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의 각종 대출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을 상반기 내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5%,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7% 돌파가능
수신 상품 금리 올리거나 인상 검토 중이라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지금보다 인상될 가능성 높아… 가계부채 등 고려하면 최소 16조원 이상 이자 부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손보사 편입…신한,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완성

한국경제

금융위원회, 다음달 초 정례회의를 통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신청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포트폴리오 재편 작업 사실상 마무리
카디프손보를 기준 손보사와 차별화된 디지털 손보사로 키운다는 구상… 을 하반기 증자도 추진 예정… 다만 신금투와 제주은행 등 풀어야 할 과제 남아…

우리은행, 예적금 금리 최고 0.40%포인트 인상

헤럴드경제

우리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22개의 정기예금과 16개의 적금금리를 5월 27일부터 최고 0.40%p 인상
우리 첫거래우대 예금'은 최고 연 2.8%에서 최고 연 3.1%로 상승… 'WON적금'은 최고 연 2.80%에서 최고 연 3.0%로 상승… 신속하게 인상해 서민들 자산형성에 보탬 목적

보험사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우수수'… 지급여력 비상

파이낸셜뉴스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채권 분석 결과 한화생명, NH농협생명, DGB생명, 한화손보 등이 만기보유증권 0원…을 1분기 RBC가 크게 하락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던 보험사들은 채권 한번 재분류하면 회계연도 3년간 변경 제한 규정으로 재분류 쉽지 않아… 이자부담이나 신규 구입 채권 평가손 우려

코로나19 여파에 대형 GA 작년 순익 32% ↓ …불완전판매율은 개선

연합인포맥스

홈쇼핑과 제판분리 자회사형 GA를 제외한 대형 GA의 당기순이익은 547억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 매출액도 6조 6,800억원으로 전년대비 3.1% 감소
대형 GA 설계사 수는 20년 말 15만 9,452명에서 작년 말에는 17만 5,974명으로 증가하는 흐름… 다만 금소법과 코로나19로 대면영업 크게 위축된 점이 수익성에 부담

NH투자증권, 홍콩 자회사 신용공여 2억달러 한도 승인

머니S

NH투자증권, 자회사인 홍콩 현지법인 NH인베스트먼트 앤 시큐리티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승인
이번 승인 목적은 해당 자회사의 자본 효율성 제고와 조달 수단 다각화 목적… 대출·지급보증·담보 제공 등 방법… 2,527억원은 최근 자기자본의 25/1000 넘는 금액

작은 증권사? ...BDC는 무엇

뉴스

금융당국,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 투자 열기를 유니콘 기업에 대한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추진
이달 말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예정…금융투자업계는 사업성 있다고 판단해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 많아… LP 도입을 통해 수급 유지하는 방안 검토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